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위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庚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아시스빌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刊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45-20 동작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본부 5개 분과가 동

동창회 조직강화와 각 동기회·국내외 지역회·직능회 등 활성화 촉진, 용마가족 유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본부동창회 5개 분과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鄭昭永 본부회장(6회·정소영 차과의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趙大濟·7회·협성개발 사장) 첫 회의를 통해 9월중에 5개 위원회를 차례로 개최, 동창회 각종 사업 등 현안에 대해 심도 높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옛 조방앞 동원초밥에서 열린 총무분과위원회 첫 회의에는 鄭本부회장을 비롯해 趙위원장 및 김대욱(29회·회장·태화마린 대

표) 권중수(31회·직전회장·버룩시장 대표) 윤성국(33회·회장·대용관광여행사 대표), 본부사무국 崔得鎬 국장(11회) 金炳秀 총무(22회) 등이 참석했다. 김학현(15회·본부부회장·세운기업 대표) 강창수(21회·본부부회장·대경마린 대표) 등은 업무관계로 불참했다.

회의를 주재한 趙위원장은 총무위원회의 실천방안으로 △본부사무국의 합리적 운영지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대의 심외활동을 통한 구심점 확립 △각종 자료의 조직적 정리 및 정보화 △불우용마가족돕기운동 계획안 마련 △포

총무위 첫 회의 개최
「저비용 고효율」회무 지향

편집·사업부 11일 열어

재정·체육·기획부
이달중 상견례 갖기로

상관리 등을 적극 추진, 동문·가족간 공동체 의식을 드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 위원들도 『특히 「젊은 동창회」를 지향해 후배들의 동창회 참여기회를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崔得鎬 본부사무국장은 朴同烈 본부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편집·사업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11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 재정·체육·연구분과위원회도 잇따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부 감사 4명 선임

정소영 본부회장은 지난달 10일 姜鎭平(10회·전 감사) 등 4명을 본부 감사로 선임했다.

△姜鎭平(10회·부광산업 사장) △韓炳祚(13회·부일합동법무사 대표)

△金元泰(18회·김원태회계사무소 세무사)

△朴哲秉(23회·산동회계법인 부산본부장)

봉황대기 28년만에 쟁취

모교, 97~98년 4관왕...「전통의 명문」 확인

모교(경남고)가 숙원의 초록 봉황대기를 28년만에 처음 품에 안아 용마가족 모두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전통의 명문」을 과시했다. 모교는 이로써 지난 6월 청룡기대회에 이어 올 시즌 2관왕에 올라 명실상부 「전국 최강자」가 됐다.

모교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30분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폐막된 제28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한국일

보 주최) 마지막 날 결승전에서 경기고를 7대1로 격파, 첫 패권의 영광을 쟁취했다.

모교는 이날 선발 송승준이 9이닝 동안 삼진 17개를 빼앗는 초특급 피칭과 위력의 13안타를 작렬시킨 타선으로 상대의 공수를 철저히 봉쇄했다.

모교는 1회초 수비에서 선발 송승준이 경기고 세 타자를 연속 삼진으

로 기를 죽임으로써 사기가 총천했다. 이를 바탕으로 모교는 1회말 공격부터 가공스런 해방망이를 가동시켰다. 「미완의 대물」 김진욱이 천금의 3점 홈런을 날려 결승점을 뽑았다. 적진 교란이 극심한 틈을 노려 4회 신민기 김태완이 적시타로 기습했고 다시 김진욱이 연타석 홈런 등을 작렬시켜 꿈에도 그리던 봉황대기를 품에 안았다.



「꿈에 그리던 초록 봉황대기 품에 안다」 모교 선수단이 8월 24일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폐막된 봉황대기대회에서 우승기를 받고 있다.

본부 용마장학회 집중투자 「결실」

재경동창회 선수에 특식(75만원 상당)·손부홍동문(15회) 격려금 50만원

이번 봉황대기 우승은 본부동창회의 용마장학회(이사장 金根復 본부고문·1회)가 지난해 1월 발족한 이래 모교야구의 중흥을 위해 꾸준히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이다.

본부동창회는 그간 모교야구부의 선수기량 향상과 용구확충, 시설보강 등에 전력을 오던중 동창회발전기금

조성운동을 전개해 전국의 동문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했고 이를 바탕으로 용마장학회를 지난해 1월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본부 용마장학회는 기금 과실금으로 학업 및 체육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특히 모교야구부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난해 2관왕에 이어 올해 「전국제패」 2관왕

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재경동창회는 봉황대기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단을 위해 75만원 상당의 저녁 특식을 제공했고, 부산의 손부홍동문(15회·전 본부이사·손부홍정형외과의원장)은 격려금 50만원을 협찬했다.

통산 우승 23·준우승 21차례

52년간 6대 메이저 「전국최고」

모교는 이번에 봉황대기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6월 청룡기대회 우승과 함께 올 시즌 2관왕을 쟁취했다. 이 같은 시즌 2관왕의 영광을 누린 것은 모두 4차례. 47년 제2회 청룡기대회와 제1회 황금사자기대회, 48년 제3회 청룡기대회와 제2회 황금사자기대회, 49년 1회 화랑대기와 3회 황금사자기대회 등. 47~49년 연속 3회 시즌 2관왕의 금자탑을 세웠다.

모교는 46년 제1회 청룡기대회 준우승을 시작으로 이번 봉황대기 우승에 이르기까지 52년 동안 6개 메이저를 통해 통산 우승 23회, 준우승 21회라는 위업을 세워 단연 전국고교 중 으뜸의 자리에 우뚝 서 있다.

모교의 역대 대회별 우승·준우승을 살펴보면 ▲대통령배 준우승 4회 ▲청룡기 우승 6회·준우승 4회 ▲화랑대기 우승 6회·준우승 7회 ▲봉황대기 우승 1회·준우승 1회 ▲황금사자

기 우승 6회·준우승 6회 ▲전국체전 우승 4회 등이다.

우승견인차 김진욱 MVP·홈런·타점 3관왕

이날 2년생 포수 김진욱은 최우수선수(MVP)상을 비롯해 홈런상·타점상을 받아 3관왕이 됐다. 김군은 이번 대회에서 아마야구 연속 경기 홈런기록(6게임) 타이틀을 이루며 8홈런·19타점을 올렸다. 개인상을 받은 모교 선수·임원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투수상=송승준(3년·투수) ▲미기상=신민기(3년·2루수) ▲수훈상=강민영(2년·투수) ▲타점상=김진욱 19개 ▲홈런상=김진욱 8개 ▲감독상=정연희 ▲지도상=조정문(야구부장) ▲공로상=김봉길 교장.

등댓불

콩 심은 데 콩난다



제8회 언론인·전 부산일보 전무이사

이
창
우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땅을 굳히는 소나기였다. 청룡기 패권과 더불어 올해 고교 메이저 2관왕은 야구명문의 부활을 예고해 주기 때문이다. 명문은 바로 전통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전통은 거저 공짜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잇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모교 야구가 우뚝 솟은 것은 그동안 모교 선생님들과 관계 동문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다. 승패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껏 승리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게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과정을 외면하는 목표제일주의는 비교육적이며 희망을 잉태하지 못한다. 패배해도 웃을 줄 아는 자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다.

나는 요즘 동창회보를 통해 전개되는 「1류」「3류」 논의를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유명대학 진학률을 기준으로 1류·3류를 가름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승리지상주의에 다름 아니다. 참으로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목표로 저마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해 내리는 노력이야말로 모교가 명문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길이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는 법이다.

세상살이가 고달플수록 위로가 필요하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 바닥에 가라앉은 우리의 기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인생의 깃새가 아니겠는가. 장마 끝에 반짝 드는 햇볕, 가뭄 속에 쏟아지는 한줄기 소나기가 하나의 자극이고 위로이듯, 그래서 우리는 박세리의 샷에 탄성을 지르고 박찬호의 페투에 환호를 올리는 것이다.

봉황대기 우승은 흔히 말하는 쾌거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려운 오늘을 살아가는 동문대중에게 다가온 하나의 위로였다. 동문제위여, 모교로부터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에게 모교는 무엇인가. 모교는 임신과 출세의 발판이 아니라, 어찌다가 우리를 신명나게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고도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교에 대한 애정일 뿐이다.

봉황대기 우승의 의미는 한줄기 소나기의 자극을 넘어선다. 그냥

黃性珍 (19회)
서울고검 검사 발탁

李迎雨 (27회)
대검 중수부 2과장 영전

金仁鎬 (28회)
서울지검 특수부장에

8월 26일 단행된 법무부인사에서 일부 검사동문이 영진됐다.

黃性珍동문(19회)은 부산지검 제1차장검사 재임중 서울고검 검사로 발탁됐다.

李迎雨동문(27회)은 부산지검 특수부장 재임중 대검중수부 2과장으로, 金仁鎬동문(28회)은 대검중수부 1과장 재임중 서울지검 특수부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黃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후 사시(15회)에 합격한 이래 서울·부산지검 검사, 대검 중수부1과장, 서울북부지청 차장검사, 부산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

李동문은 서울대 법대 졸업후 사시(21회)에 합격한 이래 부산·서울지검 검사,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 4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역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金동문은 대학 3년때 사시(19회)에 합격,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마산지검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환경과장 등을 역임.

李正鎬 (20회)
부산 동부지청 사무국장

李正鎬동문(20회)은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장 재임중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 사무국장으로 영진됐다.

李동문은 검찰직 공무원으로 출발한 이래 서울지검 부산지검 수사관,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산지검 공판사무과장, 부산지검 집행과장, 창원지검 부산지검 서무과장, 부산지검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金炯昨 (20회)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金炯昨동문(20회·국회의원)은 9월 2일 단행된 한나라당 당직개편에 따라 제1사무부총장에 임명됐다.

서울대 정의과를 졸업한 후 동아일보 기자로 활약한 金동문은 6공때 청와대 정부비서관을 거쳐 14대 총선에 부산 영도에서 신한국당후보로 출마, 당선돼 원내에 진출한 2선의원이다. 金동문은 당 기획조정 실장 등을 역임했다.

「...렌즈로 본 조국」
부산전사회 대회장 말아

한편 (사)미래사회정보생활 이사장이기도 한 金동문은 4~10일까지 부산시청 전시실(2층)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공동사진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렌즈로 본 조국」 부산전사회 대회장을 맡아 힘쓰고 있다.

“대망의 봉황대기 부산에 개선” 시민 열광

역광장서 환영식·카퍼레이드 답례

정소영 본부동창회 회장 환영사

“올해 황금사자기·내년 6대 메이저 석권”을

본부동창회는 8월 26일 오후 부산 역광장에서 28년만에 초록 봉황대기를 안고 개선한 모교 야구단 환영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鄭昭永본부회장을 비롯한 다수 임원 및 각 동교회 회장단, 동문·가족, 재학생, 시민 등 1천여명이 나와 『부산의 자존심을 경남고가 드높였다』며 『경남고 최고야!』를 연호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鄭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굴의 감투정신을 발휘해 숙원의 봉황대기를 품에 안고 개선한 선수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더욱 선양하기 위해 황금사자기도 쟁취해 올해 대미를 장식하고, 내년에도 6대 메이저를 석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후 5시 환영식이 끝나자 꽃다발을 한아름씩 안은 선수단은 우승기를 앞세우고 축하버스에 올라타 카퍼레이드를 벌였고 모교에 도착해 재학생

들의 환호와 종이꽃환영에 문했다.

선수단은 이어 金鳳吉교장을 위시한 전 교직원 및 재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우승기봉납식에서 金교장에게 영예의 우승기를 전달했다.

金교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 모교야구부는 무적함대로 일컬어지고 있다』며 『승승장구의 기량을 계속 발휘해 「전통의 명문」을 이어가는 밑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수단은 이날 오후 7시 부산 서구 서대신동 산정(13회 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본부동창회가 배운 환영 만찬회에 참석, 축하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金根俊 용마장학회 이사장(1회)을 비롯해 임원 다수, 金鳳吉 모교교장 및 전 교직원,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감격...환호...울어버린 그라운드

동문·재학생·학부모 우승확정 순간 얼싸안아

정기조 중앙대감독(29회) 선수 뒷바라지에 혼신의 노력



『후라, 경고! 우리는 이것노라!』 『오, 숙원의 봉황대기여!』

선수들은 서로 겨안은채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게임 스코어 7-1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는 장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스탠드는 온통 열광의 도가니였다.

승자편도 패자편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지난달 24일 오후 제28회 봉황대기 결승전이 폐막된 서울 동대문 구장의 스탠드는 환호와 박수로 늦더위 속에 달아오를 대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리고 용마가족들의 눈시울이 젖어 있었다. 마음 깊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金鳳吉 모교 교장(8회)을 비롯해 여러 교직원과 재학생, 선수 학부모,

본부 사무국의 崔得鎬과장과 金炳秀 총무 등 원정 동문들, 재경측의 金京喜고문 金榮海사무국장 金容贊총무와 다수 동문 등이 한데 어울려 교가를 목청 터져라 불렀다.

『전통의 명문』 경남고의 위상과 명예가 다시 한번 확인된 감격의 날입니다. 金교장은 눈시울을 적신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용마가족들도 같은 심정으로 교감했다.

특히 80년대 중반 모교 감독을 지낸 정기조 중앙대 감독(29회)은 후에 선수들을 대회기간 동안 중앙대 선수합숙소에 기숙시키고 편한 잠자리에도 매일 영양식을 제공했다. 또 틈나는대로 코칭스텝과 전략 및 각종 정보자료를 분석하기도 해 모교가 우승을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경남고 攻·守·走 전국 으뜸”

야구전문가 스포츠기자단 등 전력 평가

모교는 봉황대기 우승을 계기로 전국고교중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었다. 야구 전문가 및 스포츠기자들에 따르면 모교는 국내 52개 고교팀 중 공격·수비·주력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에 올해 전국무대를 휩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점쳤다.

마운드 경우 140km대의 빠른 공을 던지는 우완 송승준을 비롯해 오른쪽 타자 몸쪽을 서슴없이 찌르는 직구와

슬라이더가 일품인 좌완 조상희, 면도날 제구력을 바탕으로 변화구 구사 능력이 탁월한 우완 강민영 등 에이 스텝 3명이 교대로 등판하면서 상대 타선을 교란, 압도한다.

공격력도 완벽하다. 1번 신민기에 이어 4번 이상훈, 5번 김진욱, 9번 강민영에 이어지는 파괴력 넘치는 타봉은 다른 팀 투수들의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대망의 봉황대기를 안고 개선한 경남고 야구팀을 위한 부산시민 환영대회가 8월 26일 부산역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모든 영광은 고난 이겨낸 선수들의 것”

우승 제조기 정연희 감독(17회)



지면 지난 97년 부임 이래 10년 세월이 흐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감독은 이번 대회중 8강전에서 맞붙은 대구상고가 가장 힘든 팀이었는데, 대구상고를 제치고 나니 초록 봉황대기가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말했다.

『나는 선수들을 지도할 때 선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 힘썼고, 이를 나의 야구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분기 위주 훈련을 지도방침으로 삼고 있는 정감독은 현역시절 국가대표와 한전, 육군 야구단에서 명성을 떨친 강타자 출신. 83년 경남대 창단 감독으로 활약하다 프로야구 빙그레와 OB에서 코치생활을 했다.

『감당하기 힘든 강훈련을 한시도 마다 않고 견뎌낸 선수들에게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번 봉황대기와 6월의 청룡기 우승, 지난해 화랑대기와 전국체전 우승 등 2년 사이 전국무대 4관왕의 위업을 달성한 정연희감독(17회)이 24일 초록 봉황대기 우승이 확정된 순간 감격해 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든 영광은 선수들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대진운이 나빠 강팀들과 계속 대결해야 했기 때문에 결승전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감독은 고교야구 왕중왕의 자리에 모교 경남고가 우뚝 서게 하는 데는 불과 1년여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마음고생으로 따

“감독님 지도 잘 따르고 마음 비웠기 때문”

MVP등 3관왕 김진욱 군(2년)



6경기 연속 홈런은 고교야구 사상 최초의 일로, 이는 78년 실업야구 김우열(당시 제일은행)이 세운 아마 최다 기록과 타이(프로 기록은 5경기)이다.

특히 김군은 이번 대회에서 모두 8개의 홈런포로 지난 89년 최문고 박정희의 대회 최다 홈런 기록(6개)을 9년만에 경신했다. 5할2푼4리(21타수 11안타)의 타율에 타점은 19개를 올렸다.

『수비와 공격 능력을 모두 갖춘 현대의 박경완 선수처럼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군은 김재호씨(48·건축업)와 이화자씨(44)의 1남1녀중 맏이로 181cm·90kg의 우람한 체구에 손목 힘이 아주 좋고 배트 스피드가 빨라 오래 전부터 대학과 프로 등 여러 감독의 눈에 띄어져 오고 있다.

『감독님의 훌륭한 지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들이 28년간 염원해 온 봉황대기를 비로소 모교에 바치는데 건인차 역할을 한 김진욱군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결승전 1회말 마음 비우고 친공이 경쾌한 소리를 내고 날아가는 순간 홈런이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고 길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2년생 포수 김군은 경남고 우승을 이끈 주역으로 대회 MVP와 홈런상, 타점상 1위 등 3관왕에 오른 「미완의 대물」로 떠올랐다.

김군은 24일 경기고와의 결승전에서 1회와 5회 두개의 홈런을 날려 이번 대회 6경기서 모두 홈런을 날리는 대기록을 세웠다.

경남중 효창배 우승

모교(경남중)는 야구부와 농구부의 우승러시로 겹경사를 맞았다.

모교는 지난달 10일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6회 효창배 중학야구 결승전에서 대동중을 2대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유격수 김

명국은 대회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한편 모교는 5월 23일 창원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 바스켓 정복에 성공, 13년만에 패권을 누렸다.

또 4월 18~2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협회장기쟁탈 전국대회에서 서울시대표 용산중을 71대 60으로 대파, 우승을 차지해 올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제11회 동문 6명이 각자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백제문화가 찬란했던 부여·공주 등을 대상으로 회갑맞이 역사기행에 나섰다. 사진은 관촉사 은진미륵 앞에서의 기념촬영.

회갑맞이 부부동반 역사기행



제11회 쌍우회 6명 부여·공주 등 백제문화 답사

제11회동기회 산하 쌍우회 회원 6명은 7월 31일~8월 2일 부부동반으로 회갑기념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李聖光회장이 주재한 이번 여행은 우정과 사랑을 함께 재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혼여행길에 오른 듯 설레임을 감추지 못한 일행은 여행 첫날인 7월 31일 오전 부산역을 출발, 차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즐겼고, 대전을 거쳐 논산에서 신혼초아(?)를 만났었다. 뒷날 일행은 백마강 낙화암 등 부여와 공주, 관촉사 은진미륵불 등 유서깊은 백제의 명소와 문화재를 답

사했다. 일행은 백제권문화에 심취하며 그동안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날들에 보람을 느꼈다. 추억의 사진도 많이 찍고 별미와 토산주로 백제 땅 후예들의 훈훈한 인심을 마음 가득히 담았다. 일행은 부부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기념촬영에 모양을 잔뜩 냈고 별미와 토산음식이 상에 오르면 『여보, 이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자, 어서 많이 드세요...』하며 영감을 할멈에게, 할멈은 영감에게 서로 권하는 바람에 폭소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12회 이사회 뉴욕 김해락동문 참석

제12회 동기회는 8월 11일 오후 7시 중구 동광동 「일번지일식집」에서 98년 2차 이사회를 열었다. 趙哲元회장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30여명의 동문이 모였고, 특히 미국 뉴욕의 金海樂동문이 모처럼 참석해 미주지역 동창회 및 동문들의 소식보따리를 풀어보 분위기가 더욱 즐거웠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3년 동안 부산시 살림살이를 맡아 수고한 文正秀 전 부산시장과 부산시장선거에 출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河一民동문(부산대 교수)을 위해 건배를 했다. 이어 文·河 두 동문은 그동안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러 동문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다.

“영세민 진료봉사에 자긍심”

용마가족은 지역사회의 축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훈훈동불」 역할도 잘 하고, 영세민을 위한 「슈바이처 정신」을 실천하기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본부동창회 산하 직능회를 순방, 활동상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의술의 손길을 기다리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이들 영세민들을 돕자고 뜻을 모았지요.』 영세민등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봉

두차례 로사부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영세민에게 진료봉사를 베풀고 있다. 졸업한 선배들도 직접 복지관에 나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큰 힘이 된다. 용마회원들은 이곳에 와서야 영세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생각 외로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소득층 및 영세민을 위한 봉사활동의 기회를 넓혀야겠다는 강한 애착을 쌓게 되었다. 졸업한 선배들의 후원금과 재학·신

입생이 회비로 비용을 마련하고 있는 용마회는 선후배 누구나 이 일에 대해 자긍심이 강해 결집력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저희들의 진료봉사를 받은 영세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마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함을 느낍니다.』 임동문은 고통은 나누면 나눌수록 적어지고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깨닫고 이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예비한의사의 용마회 동문들은 향후 뜨거운 정성과 폭넓게 확보된 후원금으로 양질의 봉사활동을 전개할 각오를 다짐하면서, 의료정책의 재정립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용마회원들이 영세민들에게 의료봉사를 베풀고 있다.



더불어 살며...
동의대 한의학과 동문
용 마 회
사를 하고 있다는, 동의대 한의학과에서 미래의 한의사를 꿈꾸며 면학중인 동문들로 결속된 용마회를 찾아가자, 회장을 맡고 있는 임재형동문(47회·한의학 본과 4년)이 봉사활동의 동기를 이렇게 밝혔다. 85년 이 대학에 한의학과가 개설되면서 결성된 용마회는 95년부터 매달

양 마 존 추

제15회동기회에서 얘기되는 3대 불가사의가 있다. 정영선이 의사가 된 것, 유병용이 약사가 된 것, 안충웅이 교사 된 것. 요즘 사(師)자 단 사위보는 데 몇억씩 든다니까 나도 어쨌든 한때는 세상 살아가는 라이선스(license) 치고는 꽤 값가는 것을 가졌음이 분명하다. 남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는 그랬다. 98년 동기회장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나는 한참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확실히 교사를 했으니 조금은 있다 치더라도 덕망이 있나, 사회적 지위가 높나, 돈이 있나? 그렇고 그런 나에게 참회와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아닐까 오히려 의아해 마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다. 정년 퇴직, 명퇴, 조퇴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동기들이 너무 많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로 돕고 위하는 길 뿐이다. 아끼며 사랑하자! 열심히 일하다 쉬고 있는 친구들에게 소주 한 잔 전하며 위로의 말을 전하자. 마지막 남은 것은 가정과 친구밖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학창시절 기회가 없어 깊이 사귀지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지 모른다. 철없고 어리던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벌써 할아버지가 돼 있다. 허연 백발들이 어디서 온 불청객들인가? 조용하고 깨끗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 무소는 “자연으로 돌아가자”(Return to Nature)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 아닌가? 살아오면서 덮어 쓴 먼지들을 털어내고 산 좋고 물 맑은 조용한 곳으로 가 자연과 얘기하자. 동기회장이란 감투가 내겐 너무 과분한 것이라 결 잘 알지만 열과 성을 다해 뛰고 또 뛰면 되리라 믿는다.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동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존재가치를 자리매김해 놓고 우선 얼굴을 자주 부딪칠 수 있도록 판을 벌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참회하고 봉사하는 길에서 서서.



안 충 웅
제15회 회장
대원공업사 상무

남는 건 가족과 친구라고 생각 참회하는 뜻으로 봉사하리

제6회 9월 9일 월례회

제6회 동기회는 8월 27일 오후 6시30분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호텔 영빈관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朴雄鎭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20여명의 동문이 참석, 9월 9일 저녁 6시 30분 연세구 연산로타리 「코리아나뷔페」에서 9월 월례회를 개최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

文秀信(16회) 본부부회장 투병중 별세



文秀信본부부회장(16회)이 고혈압으로 쓰러져 동아대병원에서 가료중 8월 8일 별세했다. 중앙대 경제과를 졸업한 文동문은 본부감사와 부회장,

동기회 회장을 두 번이나 역임할 정도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 헌신했다. 특히 본부 용마장학회 기금조성운동에 앞장서 왔고 모교야구부 육성과 모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남달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文동문은 평통자문위원 부산시스키협회장 부산시교육위원 새마을운동중구지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국민훈장 석류장 수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모교 봉황대기 고교야구 우승 축하

在日本慶南中高教同窓會

〈東京地域〉

- 顧問 朴永敦 (3회)
- 安庸熙 (3회)
- 孫炳泰 (4회)
- 尹春貴 (4회)
- 徐鐘泰 (5회)
- 金榮璠 (5회)
- 李東燮 (6회)
- 崔莊翼 (7회)
- 金奉根 (8회)

- 金榮洙 (8회)
- 辛宣浩 (9회)
- 權奇卓 (13회)
- 安正行 (13회)

- 會長 金光信 (16회)
- 副會長 朴隆彦 (17회)
- 梁元模 (17회)
- 金大都 (18회)
- 李鐘明 (19회)
- 金址昌 (23회)

- 鄭沢滿 (23회)
- 李根培 (24회)
- 朴鍾國 (26회)
- 白善旭 (28회)

- 總務 朴永守 (29회)
- 李鎭旭 (29회)
- 韓承東 (29회)
- 申九東 (30회)
- 權昶根 (32회)
- 幹事 李相權 (35회)

〈大阪地域〉

- 會長 姜周洪 (7회)
- 金榮祚 (23회)
- 尹一重 (26회)

〈其他地域〉

- 丁銀根(姫路市) (8회)
- 張健浩(埼玉県 川越市) (26회)
- 李惠昊(香川縣 高松市) (38회)

전국 최초 「당구장 쉼터」 오픈



제18회 동문들은 「당구장 쉼터」로 꾸며진 동기회 사무실에 모여 우정을 돈독히 쌓고 있다.

각종 음료를 마시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담소실 등으로 구분돼 있어 자신의 취향대로 이용할 수 있다. 하루 20~30명이나 드나드는 이 쉼터는 방문자들이 김밥·돼지족발·쇠고기·라면·생선통조림·햄 등 음식물을 비롯해 소주·맥주·음료수·국산차·커피 등 갖가지 식음료를 협찬하고 있어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제18회 사무실에 동문 편의시설 갖춰 "인기" 하루 20~30명 출입... 식음료 협찬 풍성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당구대와 간이식당을 갖춘 동기회쉼터가 부산에서 오픈, 연일 수십명의 동문들이 모여들어 우정을 나누고 있다.

제18회 동기회는 金俊吉회장과 육병규총무의 배려로 부산진구 양정교차로 LG전자 건물 2층 40평 규모에

당구대·바둑대국실·담소실 등 3개 코너로 된 동문쉼터(전화: 852-6418)를 마련, 6월 10일 오후 6시 개소식을 거행했다.

30여 동문들의 축하속에 이날 문을 연 쉼터는 당구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코너와 바둑대국실, 간단한 식사 및

제8회 재경동기회 취미클럽별 즐거운 행사

제8회재경동기회(회장·이창규·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동문들은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여름철에도 건강을 지키면서 여생을 즐기는 갖가지 행사를 펼쳤다. 엘리노의 앙칼스런 심술과 금융위기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정은 여전히 뜨겁다.

동문이 펴낸 NEW BOOK

「세무관리론」

부산중부산세무서장 **申 鉉 浩**(14회) 지음

申鉉浩동문(14회·부산 중부산세무서장)이 세무관리 전문분야에 걸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세무관리론」 개정증보 4판을 펴냈다.

이 책은 기업회계담당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학생 등이 기본적인 이론 및 실무 기법을 익히는 데 필요한 지침서이다.

이 개정판은 기술적·실무적 차원에서 세무회계, 세법 등 기존의 세법전문서와는 달리 세무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모든 세무관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1편은 조세와 연관 있는 학문체계와 미국 등 각국 학계에서 이론을, 2편은 세무관리의 기본적 원리·세무관리 능력·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의 조정관리 등을, 3편은 실질적인 세무관리를 위한 실무를 분석하고 있다.

申鉉浩동문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후 국제청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등에서 주요 간부, 거창과 창원세무서장을 역임했다.

부산 동의대 중소기업대학원 강사와 양산대 겸임교수.

한국세정신문사 刊·값 1만5천원.

「하얀 욕망...」

시인·내과전문의 **김 경 수**(30회) 처녀시집

시인이자 내과전문의인 김경수동문(30회·김경수내과의원장·의학박사)이 최근 처녀시집 「하얀 욕망이 눈부시다」를 출간했다.

김동문은 바쁜 의료생활 틈틈이 시상을 정리해 한편의 시집으로 꾸며냈는데, 청진기로 환자의 병을 진단하듯 「신의 청진기」로 세기말적 혼돈과 우울, 권태 등 현대인의 마음의 절망을 진단해왔다.

「온천동 편도 4차원 산업도로 옆으로 흐르는 그 검은 온천천가에 /.../작년 봄에 심어 두었던 파며 상추를 캐는 것을 보았는가」(김경수 시집)



은 땅)중에서)

그의 시가 내리는 처방은, 도시민들에게 환부를 또렷이 보여 주고 절망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이들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나죽지 않고 살아있었네」를 깨닫게 하는 것.

김동문은 93년 월간 시전문지 「현대시」로 등단한 이래 시전문계간지 「시와 사상」 편집동인 대표, 한국시인협회·부산시인협회·부산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동기회보 편집장을 맡아 「삼공회보」창간호 산파역을 했다. 문학세계사 刊.

부인석

임 갑 희

(23회 박기욱동문 부인)

서울아가씨가 웬 촌먼장같은 경상도 사내의 뽀(?)에 빠져 부산으로 시집가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집안이 별집 쑤셔 놓은 듯 했다.

어머니는 『너무 멀고, 너무 거칠다.』며 질색이었다.

그때 나는 미국 갈 준비를 하던 터라 안면 바꾸고 「강통구좌」로 시집에 들어왔다.

4대 시집살이 속에서 못알아 듣는 경상도말은 남편이 통역(?)을 해주었다. 대답이야 늘상 『예, 예』 하지만 알른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명칭이 서있을 때가 많았다.

『형수요, 손 셋뜨이소. 수박 묵꾸로.』

『어머, 수박이 썩었어요?』 식구들이 한바탕 웃었다. 나는 부끄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나 식구들로 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경상도말을 열심히 배웠다.

에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시집살이에 피가 날 무렵 돈벌이를 해야겠다며 음식점(한식 대중음식점)에 도전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어디서 들었는지 『이집 사장이 경고나왔다면 서요?』 하며 확인했다. 그럴 때면 나는 『경상도에 있는 학교는 다 「경고」



「동기회 사무실은 고향같은 곳」 남편 「同門愛」 이제 알 것 같아

아니예요?』하며 능청을 떨었다.

어느 날 남편이 동기회장을 맡더니 연일 영광까지 안았다. 돈이 제법 드는 모양이었다. 동기회 사무실에서 온다며 늦을 때가 많았다.

하루는 따졌더니, 그이가 말문을 열었다.

『남들은 동기회사무실을 그냥 그런 곳 쯤으로 알지만, 실은 고향같은 곳이야.』라고 시작하고는 『동문이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 인정과 추억이 녹아 있는 곳, 사업이 어려워 골치를 아파하거나 실직한 친구들이 그래도 가장 마음 달랠 수 있는 쉼터, 형편이 나은 친구들이 표시나지 않게 운영비를 협찬하고, 길흥사를 당한 친구들이 그곳에서 재회하여 축하하고 위로해 주는 곳, 이 각박한

「경고」에 보내졌다며 고생하셨던 그때 시어른의 마음이 헤아려진다. 세월이 이만큼 흐르고 나서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고」의 울타리가 마치 공기처럼 느껴진다.

그때, 제로 베이스에서 관에 못박을 때를 한 공간으로 놓고 보면, 가장 자유롭던 시절을 공유했다는 것은 특히 세파에 시달리는 남자들에게는 대단한 공통분모이리라. 인생의 귀로에 선 선배, 새로 뭔가 꿈꾸는 후배들이 「경고」라는 일직선에 달린 운동장의 만국기처럼 다채롭고 정겹다.

피곤한 채 우리 집 <삼오정>으로 찾아오는 동창생을 어떻게 해줘야 편안한 마음이 될까? 그이의 무심한 듯한 표정 속에는 「경고」에 대한, 동문을 향한 애정이 늘 담겨있다.

세상에서 그래도 그곳만은 향기가 있는 곳, 멀리 떨어진 친구의 연락이 닿는 곳... 그이의 연설은 너무 멋있었다.

괜히 말한 내가 부끄러웠다. 우리 집 애들을 소위 명문대학에 보낼 거라며 속을 태울 때가 돼서야 「경고」의 진가를 깨닫게 되었다. 밀양촌바닥에서 애들을 명문고인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각 동기회·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245-7550

변호사 개업 인사

裵 在 昱 (17회) 올림

국내외 동문·가족 여러분의 평소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끝으로 정든 공직을 떠나 다음 장소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설, 변호사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5기)·미국 미시간대 법과대학원을 거쳐 서울·대구·울산지검·경주지청·법무국 검찰국 각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공보관, 대검 중수부 4과장,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선후배 동문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크나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두고두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재야법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하오니 변함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며, 용마가족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더욱 번창하고 건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1998년 9월 일

☎ 업무개시 : 9월 1일
☎ 사무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3호 (검찰청 정문 앞)
☎ 연 락 : 전화 (02)3482-0077(대표)·FAX (02)3482-0080
☎ 개업축하소언 : 9월 11일(금) 오후 5시부터

도쿄지역동창회

李鐘明(19회)=지난 5월 韓國船級 東京事務所長 着任
孫泰炯(23회)=駐日韓國大使館 稅務官으로서 3年間 勤務를 모두 마치고 8월 30일 歸國予定

원주지역동창회

김장영(7회)=(자택)평원동 241-11 5/1. 42-3894
우철동(10회)=(자택)학성1동 1054-1 6/3. 42-4747
김원경(12회)=동약건설 전무(E마트).762-4583.(자택)학성동 삼천리APT 201동911호.48-2477
김중수(14회)=연세대 부총장. 760-2101.(자택)홍업면 매지리 234 연세대 원주캠퍼스. 43-2356
윤희정(15회)=수한양행 대표.(0372)42-0601. (자택)황성군 황성읍 목계리 43-5. 42-9035
정광정(16회)=하얀집 침구 대표. 732-6989. (자택)45-5989
윤강묵(18회)=윤강묵이비인후과원장.42-4924. (자택)45-0185
정한주(21회)=쌍용시멘트 자원부장.(0373)370-8810
이한석(21회)=영월지원 집행관.(0373)374-4987
김형우(23회)=신우건설 이사. 46-0005. (자택)45-7645
장재화(25회)=상지대 영문과 교수. 730-0205. (자택)44-8647
차인환(25회)=차산부인과의원장. 제천 중앙로 2가. (0443)42-6170(자택)(0443)45-4307
이경국(26회)=서울치과의원 원장.(0443)45-1432
이재봉(26회)=원주의료원 마취과장. 761-6911. (자택)43-5122
이종배(26회)=상지대 한의대 학생.(자택)45-3877
이해룡(28회)=연대의대 소아과 교수. 741-1286. (자택)43-5207
박용수(28회)=원주의료원 내과 과장. 760-4519. (자택)42-6333
김중경(28회)=세명대 자연공학과 교수. (0443)49-1319. (자택)45-1125
김익진(28회)=쌍용시멘트 자원개발부.(0373)370-8114
김용식(29회)=보성치과의원 원장.(0443)43-2727
김중운(29회)=경희한의원장. 765-5213. (자택)765-6594
김태희(29회)=상지대 한의대 교수. 730-0289
최창훈(30회)=상지대 한의대 학생.(자택)43-5296
김성훈(32회)=세명대 광고홍보학

과 교수. (0443)49-1262
박용진(37회)=상지대 한의대 학생.(자택)48-0877

제6회(부산)

崔相國=6월 24일 병환으로 별세
김주호=7월 11일 차남 결혼
權興龍=8월 10일 병환으로 별세
裴鍾權=(자택이사)사상구 래법동 516-3 래법2차 한신APT 203동 602호. 324-1760
金溶澤=8월 15일 서라벌호텔에서 장녀 결혼
張在洙=8월 28일 태평초등학교 교장 정년 퇴임
尹柄龍=8월 31일 원예고등학교 교감 정년 퇴임
具河書=(전화번호변경)(0525)323-3794

제8회(부산)

김봉길=경남교 교장. 9월 13일 오후 3시 서울대 호암생활관 삼성컨벤션 센터에서 차남 관수군 결혼(주례 동기생 김진석 변호사)
김성호=9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자유센터 웨딩홀 평화홀에서 장남 정철군 결혼
장혁표=(전화번호변경)011-590-2632

제8회(서울)

박지병=(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1 한양APT 313동 401호. (0342)701-4628
손석훈=Scotch Cleaners, 3318 Footill Blvd, Oakland, Calif. 94601 U.S.A.
정현수=8월 3일 교통사고로 상해하였으며 본인도 서울중앙병원 93동 39호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폐유를 씹니다

제9회(부산)

裴鍾台=(자택이사)김해시 진영읍 신용리 624-9 석림그린빌라 13동 301호 (0525)43-2084. 지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 김해시 의원에 당선
尹日明=(자택이사)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293. (0525)43-0888
李辨俊=(자택이사)사상구 모라2동 1236 한일 APT 2동 103호. 312-7542
金鍾求=(자택이사)사하구 괴정4동 762-41. 291-5920
金成宇=(자택이사)중구 영주1동 636 6/4 일신맨션 602호. 468-9748

具定雄=(자택이사)서구 암남동 234 오륙도희집. 254-1356
李東炫=8월 27일 거제시 장승포동 해성고등학교 교장 명예퇴임식.(자택) (0558)681-2673

제10회(부산)

宋南進=부산산부인과의원(개원). 수영구 수영동 450-12. 753-2635
方奉佑=안전회계법인. (사무실이전)동구 범일동 825-3 놀원빌딩 13층. 644-5151
李仁泰=연화식당(개업). 연지동. 817-7587
吳剛旭=7월 25일 허심청 대연회실에서 딸 결혼

제10회(서울)

孫昇安=7월 4일 숙환으로 별세
金萬郁=(자택이사)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37-2 진도 APT 104동 1602호. (0346)521-2526
秋仁曠=(자택이사)성동구 마장동 818 현대APT 111동 902호. 292-3567
李秉澈=이병철세무회계사무소(사무소개설). 의정부. (0351)829-0277
李相華=9월 19일 오후 1시30분 올림픽 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장남 석준군 결혼

제11회(부산)

姜秀雄=대한보증보험 상륙총괄대리점 대표. 462-5630. 지난 3월 남천성당에서 장남 동현군 결혼. 8월 29일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증세로 무릎수술을 하여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중(9월말까지 입원예정) 병실전화 (02)708-1041 (자택)622-3552
金東武=시민황토구이전문점(개업). 서대신동 로타리. 243-9990. 017-593-2778
呂運洛=지난 교통사고로 두병중. 동기들의 위로전화 부탁드립니다.(자택)부산진구 개금1동 177-129. 894-2086
李相勳=짚구제과 대표. 지난 7월 개업20주년 행사 개최. 893-4173
鄭光雄=(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333 대우1차APT 111동 1502호
崔亨旭=울산합동관세사무소 대표관 세사(사무실개소). 울산시 남구 야음2동 832-1. (052)272-6975. 011-598-5829. (자택)

515-6239

제12회(부산)

金海樂=뉴욕거주. 8월 10일 일시 귀국 동귀회 사무실 방문
文正秀=(자택이사)북구 금곡동 유림금곡APT 205동 402호. 363-0312
朴正潤=구례화엄사 연빈회관 대표. 지난 수해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朴彰=세계불교신문 편집인(취임). 555-5535
安永圭=부산의료원 병원장. 8월 8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차녀 결혼
鄭棟植=동의대 교수. 9월 6일 차녀 결혼
河一民=국민회의 부산 금정을 지구당 위원장. 8월 20일 장전동 웨딩 프라자 국민의당 부산 금정을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당선

제14회(부산)

姜夏伊=롯데제과(주) 관리담당이사. (0523)370-6011. (자택) 558-4845
金官俊=7월 23일 부친 별세. 632-6686
박중철=경신합동회계사무소 대표회계사. 465-5751. (자택이사)해운대구 좌동 1386 2차 롯데APT 202동 1202호. 702-5636.
崔香一=선장. 8월 29일 코모도 호텔 충무홀에서 장녀 결혼.
尹龍男=거제군 연초면 연초 초등학교 교장 부임 (0558)636-4248

제15회(부산)

任炳徹=부산시 금정구청 재무담당관. 510-8270
金熏=(자택)343-5121. 012-523-7082. 016-548-5121
孫芳鉉=7월 2일 모친 별세
李大燮=7월 26일 별세
孫實=(주)원림 중부지구 공장인(주)대륜(대표이사 신용기 15회) 실장. (0434)535-1125. 봉생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수차례 받은 후 경과 좋음
黃春植=(자택전화번호변경)405-4397. FAX 405-0138

제16회(부산)

文秀信=8월 8일 고혈압으로 동아대 병원에 입원중 별세.
金吉井=9월 2일 동귀회 사무국 방문. 열심히 주중 산행을 통해 건강한 모습. 582-7153.
朱洛坤=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에 APT 장만하여 한달에 보름은 부

산에 체류하며 지낼 예정
李同福=사하경찰서 괴정3파출소 부소장. 204-2924
千光吉=삼락초등학교 교사. 303-3524
趙成輝=대변초등학교 교사. 721-1302. (자택이사)해운대구 채송동 코오롱 APT 112동 502호. 783-4990
李在隆=在日大韓基督教 東京 베데스다 教會 목사. 03-3838-2129.
李成奎=울산 현대중공업(주)전장설계과장으로 재직중. 지난 연말 퇴직하고 서울에서 도시락 전문점 경영하다 숙환으로 8월 23일 별세.

제17회(서울)

裒在昱=변호사 개업.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3호. 3482-0077

제18회(부산)

高萬淑=풍성실업(주) 대표. 동귀회 사무실에 슬리퍼기증. 527-9061
金萬根=삼우실업(주) 대표. 325-3511
金元泰=김원태회계사무소 소장. 동귀회 사무실 전화기증. 241-0700
朴碩道=영도세무서 소득세 계장 전보. 9월 20일 오전 11시 목화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256-4754
申旻燮=인풍(주) 영업상무. 636-9966
徐富原=한샘주택(부동산,살내장식) 대표.202-4212
徐成德=아람유통(주) 대표. 722-3111
陸炳奎=동귀회 사무실 실장. 852-6418
李星一=삼보산업(주) 전무이사. 동귀회 사무실에 에어로기증. (0553)41-0130
李香雨=청조테니스장 대표. 9월 6일 장녀 결혼 글로리아콘도예식장. 745-0754.
張壽一=신성그래픽(타일 모자이크 디자인) 대표. 865-2088
鄭容浩=창원병무장병검사장. 지난 8월 13일 모친 별세. (0551)79-9282
許泰烈=한나라당 부산 북-강서(을)지구당 위원장. 972-6836

제19회(부산)

김성필=C.T.I.반도체(주) 이사. (자택)742-4166
김성희=JAL.부산지점 이사. 469-1215~9

◆ 모교 봉황대기 고교야구 우승 축하

제5회 동귀회 임원·회원 일동

회장 鄭九泳
부회장 文正淳
감사 鄭進愚
총무 金洙鉉

회원 姜吉秀 姜周碩 姜太遠 孔鎮一 權赫七 金殷奎 金成出 金永昊 金興胃 金熙水 金政奎

金鎮萬 金武福 金秉武 金和聲 金昌南 金戊坤 金海東 金仁澤 金均度 金榮道 金泰洙 金潤德

金定泰 金鍾健 金炯大 盧在銀 文翰圭 文潤庭 朴炳仁 朴命浩 朴正午 朴眞佑 朴日潤 朴讚燮

裴基武 裴春燮 卞東昌 尙基中 徐正萬 成贊永 宋斗成 申鉉五 嚴基東 王成殷 禹明洙 禹昌雄

劉炳漢 劉月榮 俞鑑漢 尹明浩 尹星琦 尹性浩 李光洙 李榮允 李愚鉉 李遺燮 李在哲 李在鉉

李太申 李洪雨 李文基 李景玉 林尙澤 林外澤 任正元 林聖業 林采煥 張錫元 鄭嘉謀 鄭奎謀

鄭昞璘 鄭萬吾 鄭鎭澤 鄭泰源 鄭寅漢 鄭熙俊 丁壽榮 趙吉濟 池用夾 陳道榮 陳道進 崔庚出

崔三柱 崔容植 崔元球 崔雲洙 韓惠愚 黃明化 黃輪性 黃良炫 黃柱湊

대덕과학단지 주축 150여 대가족



화합을 자랑하고 있다. 대전을 중심으로 공주 천안 조치원 등지에 생활근거를 둔 동문들이 각종 모임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게 되면 많게는 3백 50여명이나 된다.

1980년 3월 10여명의 동문이 쓸쓸하게 모여 창립의 횃불을 밝힌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초대회장은 김찬조(3회·충남대 농대교수)였고 강수석(11회·국방과학연구원)이 총무를 맡아 기반을 다지느라 무척 애를 먹었다.

그 뒤로 기라성같은 회장 총무가 대를 이으면서 현재 12대 張虎男(17회·과학기술연구원 교무처장) 장(17회·과학기술연구원 교무처장)과 배성한 총무(29회·한국과학기술원 수학과 교수)가 쌓아올린 역사와 전통을 다지기에 여념이 없다.

지역동창회 순례 대전

대전지역동창회는 1백50여명의 동문이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결속과

공주·조치원·천안에서도 참여 계절별 정례회·등산대회 등 활발 부산고 친구들과 갖가지 친선행사

1백50여명의 동문중 60% 가까운 동문들이 과학의 도시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와 여러 대학교에서 한국의 과학발전을 위해 심혈을 쏟고 있다. 학계에서는 김 초대회장을 비롯해 김호철(3회·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5대 회장을 역임한 윤형원(9회·충남대 총장)등 33명이 후학지도에 앞장서고 있다. 연구소에는 서연호(6회·한국

원자력발전기술원) 강 초대총무 등 83명이, 의학계에는 3대 회장 강제화(9회·강제화산부인과의원장) 「영원한 총무」 김성수(21회·김성수치과의원장)등 10여명이 의료활동을 펴고 있다. 또 공공기관에는 배 훈(13회·대한주택공사 충북지사) 등 6명이, 기업체에는 백영학(3회·충청지역정보원장)과 김동순(8회·태성상사 대표) 등 13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특히 김호연(19회)이 대전시민 사이에 화제거리. 그는 대전백화점 영업이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실내포장마차 「오오구이」를 열고 최근 TV와 신문에 이름을 날렸기(?) 때문. 군에는 조배현(15회) 김문기(18회) 왕정모(26회) 등이 있다. 대전동창회는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차례(3, 6, 9 12월) 정례회를 열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주고

□ 집행부
회 장=장호남(17회·한국과학기술원 교무처장)
부회장=정운모(18회·정의과의원장) 김덕수(19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 조창운(19회·국방과학연구소) 김찬만(20회·한국관세사무소 사장) 김성수(21회·김성수치과의원장)
감 사=손태우(22회·담배인삼공사 감사실) 구준순(26회·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총 무=배성한(29회·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받는다. 정례회 때는 대전을 비롯, 공주 천안 조치원 등지 용마가족이 대거 모여 북새통을 이룬다.

또 연간 네차례 이상 「대전 소식지」를 발간한다. 용마가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소식지는 95년 연명배(29회·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이 총무를 맡았을 때 창간했는데, 이젠 틀이 딱 잡혀 있다.

특히 용마가족의 결속과 화합의 활력소가 되는 용마테니스회(회장 유계형·20회, 총무 홍철희·30회) 용마산악회(회장 김찬만·20회, 총무 임무택·29회)가 왕성한 활동을 펴 건강과 우의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부산고동창회와의 합동등산대회 합동체육대회 테니스대회 등 빅3 친

끈끈한 情 넘쳐... 유성온천·동학사 등 명소 즐비

대전동창회는 근교에 계룡대가 있어 군에 근무하는 동문들이 자주 거쳐 가는 곳이다. 그들에 따르면 다른 지역동창회 보다 활동이 활발하고 동문간의 유대감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걱정이 태산같다. 웬일인지 모임에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그래서 집행부

는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 풍성한 동창회모임이 되도록 지혜를 짜고 있다.

대전은 유명한 유성온천 계룡산 국립공원 동학사 엑스포과학공원 등이 있고, 승용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대둔산 철강산 금강 대청호 공주 부여 등 수많은 볼거리와 쉼터가 있다. 평소 이곳 동문들은 다른 지역 동문과 가족들이 찾아오면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대전지역 용마가족과 부산고 가족들이 합동등산대회(95년)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즐거운 모습(왼에는 정호남 회장).



「경남고」하면 “전통의 명문” 여전히 부러워해

한발인터뷰

김성수(21회) 부회장



우리 대전권 동문들은 이곳 지역 사회가 「경남고=명문고」란 인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 특히 「대통령 동문」 덕택에 요즘도 기는 죽지 않았다.

YS를 두고 누가 「네댓!」이라고 한단 말인가? 그렇게 잘 나가던 참모들은 낭패가 생길 때마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87년 대선 당시 어느날 동창회 모임에서 일부 동문들이 동반 출마한 DJ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자 YS

는 「셀데 없는 소리, 민주주의는 경쟁이야...」하며 민주화 동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의리를 표시, 이상 더 말을 못하게 했다.

이곳 동문들은 요즘 크고 작은 모임에서 만나면 「외롭고 괴로운 일상에 있는 YS 곁에 그래도 선후배 동문들이 찾아들어 말벗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주고 받는다. 무척 기분 좋다. 우리 용마 파이팅!

“실직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뉴스메이커

오오구이포장마차 사장 김 호 연(19회)

「오오구이 포장마차」를 열어 고개숙인 명퇴자들에게 재기의 복음을 전도한 전국적 스타(?) 김호연(19회). 대전바닥에선 「오오구이 김사장」하면 간첩 빼고는 다 알 정도로 TV·신문 등 매스컴을 탄 행운아이다. 그래서 대전지역동창회의 용마가

족을 대변할 정도로 유명인이 되었다. 김동문은 용마가족 일이라면 자다가도 깨어나 처리해 주는 적극파.

69년 신세계백화점 입사 이후 30년간의 유통업계 생활을 대전백화점 영업이사를 끝으로 마감했다. 요즘 유행어가 된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 때문. 궁리 끝에 「오오구이 포장마차」를 대전 서구 탄방동 세반소방 길 건너 농협골목에 열었다. 호황을 누릴 줄은 김동문 자신도 생각하지 못한 일.

명퇴자를 비롯해 실직자 서민층 셀러리맨에 동문·가족들까지 봄벼 매일



소리로 「사랑을 위하여」 등 노래 한 곡조 뽑아주면 손님들의 감동(?)에 매상이 더 올라간다.

명퇴자 등이 재기하기 위해 김동문을 찾아와 경영수업을 받는다. 김동문의 포장마차 성공비결·운영철학 등은 어떤 것일까?

여러 원로와 고문들은 지금도 동창회 모임에 꼬박꼬박 나와 후배들을 격려하며 기꺼이 자문도 하고 있어 훈훈하다.

선대항전은 객지의 고향친구들간의 뜨거운 교류가 아닐 수 없다. 테니스는 부산고 「청조팀」보다 경남고 「용마팀」이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같이 대전동창회가 탄탄한 기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창립 이후 여러 고문과 역대회장단 총무들이 앞장서 헌신했고 모든 용마가족들이 적극 성원했기 때문이다.

여러 원로 고문들은 지금도 동창회 모임에 꼬박꼬박 나와 후배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 훈훈한 광경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총무」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김성수 부회장(21회)이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동창회를 지키고 있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집행부가 동문들의 경조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기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더욱 공고해지지 않을 수 없다.

재기 돕는 「마당발」 전도사

김동문은 「상호철학」으로 △짜고 △맛있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넉넉해야 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또 「5대 기본요건」으로 ①내가 좋아서 시작한 사업 ②이웃 만나기 좋아해야 ③대전 최고의 포장마차 ④사돈과도 쉽게 소주 한 잔 ⑤수입 있어 야 등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시켜 나가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김동문은 「체면 따지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탈(脫)체면」이 곧 자존심이라 생각하고, 이 길에 들어서면 승산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고문단
김찬조 백영학(이상 3회) 서연호 이현덕(이상 6회) 노남석 정상진(이상 7회) 김동순(8회) 강제화 김원섭 윤형원(이상 9회) 최대성(10회) 강수석 김경탁(이상 11회)

- 역대회장·총무**
- △제1대=80. 3~81. 3
회장 김찬조(3회)
총무 강수석(11회)
- △제2대=81. 3~82. 7
회장 손종수(7회)
총무 김성수(21회)
- △제3대=82. 7~85. 12
회장 강제화(9회)
총무 김성수(21회)
- △제4대=85. 12~86. 12
회장 김원섭(9회)
총무 구준순(26회)
- △제5회=86. 12~88. 3
회장 윤형원(9회)
총무 조대우(25회)
- △제6회=88. 3~90. 2
회장 최대성(10회)
총무 김덕수(19회)
- △제7회=90. 2~92. 3
회장 강수석(11회)
총무 김창수(25회)
- △제8대=92. 3~93. 3
회장 강수석(11회)
총무 김성수(21회)
- △제9대=93. 3~95. 3
회장 김기인(12회)
총무 김성수(21회)
- △제10대=95. 3~96. 3
회장 조규향(14회)
총무 엄명배(29회)
- △제11대=96. 3~96. 12
회장 옥공윤(14회)
총무 엄명배(29회)
- △제12대=96. 12~현재
회장 장호남(17회)
총무 배성한(29회)